

# 그들은 만났을까

## —김태오와 박흡의 경우

정민구(전남대)

### 하나의 장에서 김태오를

- 1903년 7월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금계리에서 김윤홍과 김덕연의 차남으로 출생.
- 1918년 3월 광주승일학교 졸업.
- 1918년 여름 '양파정'에서 동지 10여명과 함께 소년단을 조직, 조선소년운동의 출발점에 섰.
- 1925년 5월 오웬기념각에서 광주어린이회 주최 어린이날 기념식 및 소년소녀연합 토론회 진행.
- 1926년 신간회 광주지부 총무, 광주기독소년회 임원으로 선출.
- 1927년 7월 조선소년연합회 창립발기대회에서 남천석, 방정환, 정홍교, 최청곡 등과 함께 창립준비위원으로 선출. 9월 정지용, 윤극영, 한정동, 신재항, 고장환, 유도순 등과 함께 '조선동요연구협회' 창립.
- 1927년 9월 광주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린 광주의용소년회 창립총회에서 강순명과 함께 지도위원으로 선출. 10월 조선소년연합회 창립대회에서 강석원, 최청곡, 정홍교와 함께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. 위원장에 방정환, 부위원장에 전백 선출.
- 1928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7일간 무등산 중심사에서 열린 농촌지도자양성강습회에서 조선기독교청년회 전남연맹대표로 「소년운동의 지도적 원칙」 강연. 8월 전남소년연맹 조직을 위한 비밀집회에서 피검, 동료들과 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4월형을 선고 받음.
- 1929년 1월 광주소년연맹 위원장으로 선출.
- 1929년 4월 조선소년영화제작소 영화화 추진 간사로 선출. 6월 임예원과 결혼.
- 1930년 일본 니혼대학으로 유학.
- 1932년 2월 조선일보 광주지국 총무 겸 기자로 근무.
- 1933년 6월 『설강동요집』(한성도서주식회사)을 출간.
- 1939년 5월 김기진, 김광섭, 김상용 등의 발기, 임화의 사회로 첫 시집 『초원』 출판기념회를 개최.
- 1945년 11월 중앙여자전문학교 설립자 겸 교수로 취임.
- 1949년 『미학개론』(정음사) 출간.

### 다른 하나의 장에서 박흡을

- 1912년 10월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에서 박균명과 이우신의 독자로 출생.
- 1927년 2월 장성 공립심상 소학교 졸업. 3월 이리농림학교 입학.
- 1930년 11월 이리농림학교 독서회장으로 광주학생운동 1주년 기념 팜플렛을 배포한 것이 발각되어 퇴학 당함.
- 1932년 6월 경찰부 명령으로 검속과 가택수색을 당함. 8월 비밀결사혐의로 장성경찰서에 피검. 이후 전남경찰부에 다시 피검되어 10월에 석방됨.
- 1933년 3월 장성협동조합사건으로 전북경찰부에 검거 당함. 이후 10월까지 취조를 받음.
- 1934년 장성협동조합사건의 공소공판 증인으로 호출되어 계속 취조를 받음.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으나, 행적 불명.
- 1946년 숙명여전에서 강의. 제자 이석봉을 만남.
- 1947년 5월 경향신문에 시 「젊은 강사」를 발표.
- 1948년 숙명여전을 사직, 광주로 내려와 광주서중에 교사로 근무.
- 1949년 3월 1일 이석봉과 결혼.
- 1951년 1월 김남중, 최동형 등과 전남문화단체총연합회 전남지부 결성. 전우, 갈매기, 전남일보, 상록, 젊은이 등에 시를 발표. 4월 문총구국대전남지대 결성. 6월 『신문학』 창립동인으로 참여. 「호남문학을 말하는 좌담회」 참석.
- 1952년 9월 『시정신』 창립회원으로 참여. 시정신, 다도해 등에 시를 발표. 10월 광주고등학교로 전근. 강태열, 박봉우, 윤삼하, 주명영의 4인시집 『상록집』 발간 지도.
- 1953년 10월 『시와 산문』 창립동인으로 참여.
- 1955년 광주고등학교를 사직.
- 1957년 4월 『현대문학』에 시를 발표. 8월 전남일보에 「전남문단 십년기- 그 회고와 단상」을 발표. 11월 『전남예술』에 「전남 문단의 과거·현재·미래」를 발표.
- 1958년 1월 전남일보 주최 「중앙증진과 재광문인과의 문학좌담」에 박종화, 김동리, 손소희, 천상병, 김현승 등과 참여.

## 또 다른 하나의 장에서 그들을



- 1902년 충청북도 옥천군 읍내면 향청리에서 태어난 정지용은 옥천공립보통학교,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, 동지사대학 영문과를 졸업. 1927년 조선동요연구협회 창립. 1930년 『시문학』 동인 참여. 1935년 시문학사에서 첫 시집 『정지용시집』 출간. 1946년 『경향신문』의 주간으로 취임, 이듬해 사임.



- 1903년 전라남도 강진군 군내면 남성리에서 태어난 김영랑은 강진공립보통학교, 휘문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, 청산학원에서 수학. 1930년 『시문학』 동인 참여. 1935년 시문학사에서 첫 시집 『영랑시집』 출간. 1949년 공보처 출판국장으로 취임, 6개월 후 사임.



-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난 김현승은 목회자였던 부친을 따라 1920년 광주로 옮겨와 숭일학교를 다님. 1934년 양주동의 추천으로 등단. 숭실전문학교의 자진폐교 후 1936년 다시 광주로 돌아와 숭일학교에서 근무했으나 신사참배 거부로 해직. 광복 전까지 절필. 1950년 광주에서 박흡 등과 『신문학』을 창간.

## (불)가능한 여러 물음들을



- 지역문학의 현장을 들춰보는 과정에서 항상 스며드는 물음, 그들은 만났을까, 서로가 서로를, 그들은 만났을까, 한국문학의 현장을... 그 무엇보다도 그들은 만났을까, 광주문학의 현장을...
- 김태오와 박흡은 한국현대문학사에 기록되지 않았음. 단, 김태오는 한국아동문학사에 기록되었음.
- 『광주문학사』(1994)는 한국아동문학사의 관점에서 김태오를 '선구적 아동문학가'로, 지역문학사의 관점에서 박흡을 '호남문학의 발전에 기억될 만한 시인'으로 기록하고 있음.
- 『광주의 시인들』(2017)은 지역문학사의 관점에서 김태오를 '광주전남 최초의 현대시인이자 아동문학가'로, 박흡을 '시인이자 항일운동가, 교육자, 행정가'로 재호명하고 있음.
- 김태오와 박흡에게 광주는, 광주의 문학은 무엇이었을까, 혹은 김태오와 박흡은 만났을까, 광주문학의 현장에서...
- 김태오와 함께 조선동요연구협회 활동을 했던 정지용, 숙명여전에서 강의를 하며 박흡과 교유했던 정지용, 그는 매개가 될 수 있을까, 그들을 만나게 하는...
- 박흡과 함께 『신문학』을 창간하며 광주문학의 시작을 선포했던 김현승, 김태오가 동료들과 함께 소년운동과 문화행사를 열었던 곳이자, 김현승의 부친 김창국이 신도들과 예배를 드렸던 곳, 양림동 일원, 김현승은 매개가 될 수 있을까, 광주문학의 현장을 잊게 하는...
- 지역문학의 현장을 향해 던지는 (불)가능한 여러 물음들을 통해, 그들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...